



'이승훈과 함께하는 스케이팅 클래스' 모습(왼쪽)과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과 스웨덴 대표팀의 친선경기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 | 한국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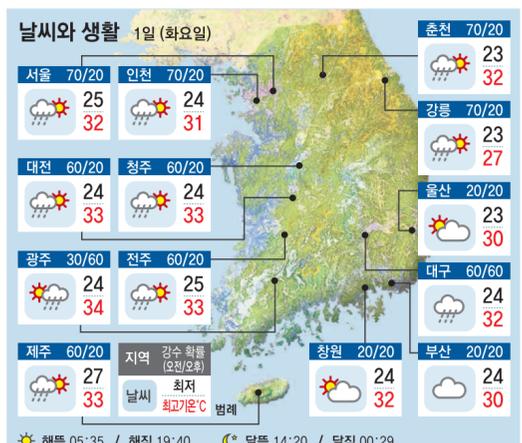
평창동계올림픽, 한국 P&G도 함께 편다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로 전방위 활동 '이승훈 스케이팅 클래스'-팬미팅 등 개최 여자 아이스하키대표팀-스웨덴전도 지원

‘한국P&G가 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19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계약한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한국 P&G가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P&G는 최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이승훈과 함께하는 스케이팅 클래스'를 열었다.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인 이승훈이 3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일 스케이팅 강습을 실시했다. 또한 팬

미팅, 포토타임 등도 함께 진행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이승훈 선수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최근 강릉 아이스하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과 스웨덴 대표팀의 친선 경기도 한국P&G의 남다른 노력이 없었으면 성사되기 어려웠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4월 2017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세계선수권대회 4부 리그에서 5전 전승으로 우승하며 3부 리그로 승격했고, 세계랭킹도 22위까지 올라가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마땅한 연습경기 상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P&G가 나서 아이스하키 강국과의 친선경기를 추진했고, 그 결과 세계랭킹 5위의 강호 스웨덴 대

표팀과의 경기가 이루어졌다. 비록 1차전 0-3, 2차전 1-4로 모두 졌지만, 많은 관중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좋은 실전 경험을 쌓았다. 한국P&G 측은 "11번가 기획전을 통해 다우니 섬유유연제, 질레트 면도기, 팜퍼스 기저귀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수익의 일부를 직접해 친선경기를 성사시켰다"며 "제품 구입 고객 2000여 명이 경기에 초청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모았다"고 했다. 이밖에 온라인쇼핑몰 G마켓과 함께 한 '올림픽 프로 쇼'에서는 올림픽 개최시 초청 등 대대적인 응원 이벤트를 눈길을 끌었다. 한국P&G 측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며 "올림픽 및 출전 선수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25/33	인천송도 25/31	서울 26 좋음
설악산 23/27	제주도 24/32	부산 39 보통
오대산 22/31	경포대 23/28	대구 48 보통
계룡산 24/34	속초 22/27	인천 29 좋음
속리산 23/32	대전 25/32	광주 34 보통
소백산 23/32	안면도 꽃지 25/32	대전 27 좋음
팔공산 24/33	변산반도 25/34	울산 46 보통
지리산 23/32	거문도 25/30	경기 26 좋음
덕유산 22/32	철보 24/28	강원 30 보통
내장산 25/34	해운대 24/30	충북 24 좋음
한라산 23/28	제주도 27/33	경남 46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2일(수) 서울경기 26/33 ☀ 23/28 ☁ 26/34 ☀ 24/29 ☁ 27/32
3일(목) 서울경기 24/33 ☀ 23/27 ☁ 23/32 ☁ 24/33 ☀ 23/30 ☁ 25/33

BMW 뉴 4시리즈, 더 우아하고 강렬하게 진화

쿠페, 컨버터블, 그란 쿠페 등 11개 모델 단단해진 서스펜션... 더 스포티한 주행 가능

BMW 4시리즈는 아름다움과 혁신을 상징하는 BMW 짝수시리즈의 핵심 모델이다. 28일 부산 힐튼 호텔에서 공개한 뉴 4시리즈는 쿠페와 컨버터블, 그란 쿠페는 물론, 고성능 모델인 뉴 M4 쿠페와 컨버터블도 함께 출시됐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더 세련되고 날렵해졌으며, 서스펜션은 더 단단해져 스포츠 주행 성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 더 스포티해진 외관과 디테일 더한 인테리어
뉴 4시리즈의 디자인 변화는 전면부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가장자리 쪽으로 점점 커지는 형태

의 대형 공기흡입구가 차량 전면에 강력한 존재감을 더했다. 여기에 LED 헤드라이트가 더해져 더 스포티한 인상을 준다. 인테리에는 디테일을 강화해 감성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공기 배출구와 도어 부분의 컨트롤 패널을 둘러싼 부분, 뉴 4시리즈 컨버터블의 하드톱 루프 스위치, 앞좌석 일체형 벨트 가이드를 크롬 느낌으로 처리했다.

● 단단해진 서스펜션과 향상된 주행 감각
주행 성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낮아진 무게중심과 더 단단해진 서스펜션이다. 3시리즈보다 무게중심이 20~40mm 낮다. 서스펜션은 더욱 진화한 댐핑 기술과 향상된 스티어링 설정으로 차내 하중에 관계없이 횡과 종방향 핸들링 특성이 크게 향상됐다. 덕분에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 줄어 뛰어난 주



뉴 4시리즈는 더욱 세련되고 날카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세 시트로 재탄생했다. 또한 더욱 단단해진 서스펜션을 통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핸들링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사진제공 | BMW코리아

“카스주세요”...카스, 20대가 좋아하는 맥주 1위 등극

전 연령층서 우위...20대서 특히 선호

오비맥주 '카스'(사진)가 20대 젊은 소비자층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업 칸타 밀워드 브라운(KMB)에 따르면 4월부터 최근 3개월 전 국민 19세 이상 55세 이하 성인 2405명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카스 브랜드가 43.3%로 대한민국 소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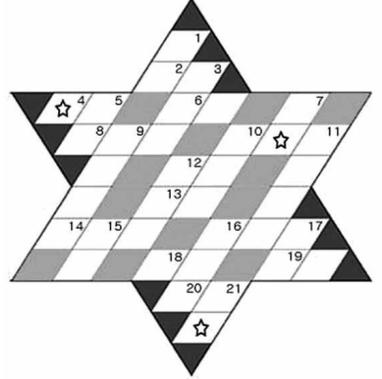
가장 선호하는 맥주 브랜드로 꼽혔다. 이는 국내 경쟁 제품 A(20.1%), B(7.5%), C(4.1%)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글로벌 브랜드 D(4.5%), E(4.2%)와 비교하면 10배가량 높은 결과다. 카스는 모든 연령층에서 선호도 1위에 올랐고, 특히 2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응답자 722명 중 44.8%가 카스 브랜드를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했다. 전 연령의 선호도보다 1.5% 포인트 높은 수치다. 원성열 기자

빙그레, '소프트 랩' 안테나 쇼 개점

빙그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 랩(Soft Lab)'의 안테나 쇼를 경의선 숲길 공원 일명 '엔트럴 파크' 근처에 오픈한다. '소프트 랩'은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믹스로 원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B2B 사업의 브랜드다. 현재 유통중인 저가형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차별화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저가형 소프트 아이스크림 원재료는 분말 형태의 상온유통이 대부분이지만 빙그레 제품은 액상형태로 냉장유통한다. 국내산 우유를 사용, 제조한 지 5일 이내의 제품만 판매하는데 원유와 유지방의 함량이 높아 진한 우유 맛을 느낄 수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많은 소비자들의 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강주현의 퍼즐월드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 가로 열쇠
02. 소·말·양 따위를 놓아 기르는 설비를 갖춘 넓은 구역의 땅. 04. 물건의 갈라진 곳. 06. 그 일과는 아주 딴짓으로 하는 일. 08. 변소에서 쓰는 얇은 종이. 10. 피륙 두 필을 짤 감으로 주되, 한 필은 그 삼으로 주는 일. 12.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원함. 13. 싸우고자 하는 의지. 14.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처녀. 16. 주문을 받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옷. 18. 자신의 언행이나 생각에 대하여 그 잘못이나 옳고 그름 따위를 스스로 돌이켜 생각함. 19.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 20.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는 그림이나 사진. 또는 그 인쇄물.

■ 세로 열쇠
01. 설이나 추석 같은 것을 앞둔 긴요한 시기. 03. 종아리 뒤쪽의 살이 불룩한 부분. 05.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국민이 됨. 07. 수효를 세는 맨 처음 수.

09.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의 속칭.
10. 상수도에 보낼 물을 모아 두는 곳. 11.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은. '이오동오' 12. 자풀이로 팔고 남은 피륙의 조각. 15. 기압의 고저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 16. 맞출이 아닌,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구두. 17. 과거의 제도·사상·정치·체제 따위로 돌아가. 21. 공훈에 보답함.

■ 퍼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간의 글자를 차례로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이름이 됩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1일(화요일) 음력: 윤 6월 10일

쥐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 가을비, 떠나고 싶다. 운세: 꿈은 크나 현실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 시킨다. 형제나 친구들의 조언을 구하면 좋겠다. 오늘은 인척이 있는 날이다.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 맑음, 평화롭다. 운세: 성공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타인의 일에는 간섭하지 말며 시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안정을 도모하라.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해·번개, 갈등. 운세: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번민이 따르니 자제와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영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싸움, 소심한 날. 운세: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쾌청, 생애. 운세: 확장이나 변화를 원한다면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극기의 정성이 필요할 때이다. 길방: 동
말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라.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혼자서 일 처리하지 말라.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나아지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 쾌청, 힘찬 하루. 운세: 긍정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르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여명, 일출 직전. 운세: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뜻밖의 좋은 만남이 있겠다.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길방: 서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 4, 6, 9, (2, 5) 금일복권, 주시,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소, 뱀, 닭 금일 주시,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

한국ABC 인종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신지 않습니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현대인턴부 02 2020 1065
편집부 02 2020 1032 경제부 02 2020 1062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성제1로 1
스포츠1부 02 2020 1041 뉴미디어전략 02 2020 1027 2008년 3월 3일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2008년 3월 24일 창간
광고국장 이승호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본지는 신문유리경영 및
인쇄 동아일보사 sol@donga.com 그 실천을 중시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